

TV 뉴스 담화의 분석 *

남 수 경 **

I. 머리말

사람들은 신문 기사나 TV, 라디오 등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는 은연중에 사건들이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믿음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향에 부합하는 신문이나 방송 채널을 택해서 고정적으로 그것을 구독하거나 시청한다는 사실은 신문 기사나 뉴스 안에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어떤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뉴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나 편집부의 특정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지, 언론사의 사회·문화적 기능, 언론사의 정치·경제적 조건, 뉴스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에 관여하는 사회적 인지 등 모든 것을 컨텍스트로 해서 생성되는 담론이다. 이를 두고 반 다이크(van Dijk)는 뉴스란 본질적으로 그것이 생성되는 사회·문화·정치뿐 아니라 기자, 나아가 수용자들의 심리까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산물이라고 한 바 있다.¹⁾ 그럼에도 뉴스를 만들고 보도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믿음과 저널리스트로서의 직업적 규범을 구현해야 한다는 과제로 인해 딜레마를 겪고 있다. 결국 객관성과 공정성이 뉴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가톨릭대 강사)

1) 백선기·곽영선(1999:166-168) 참조.

스의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아주 제한된 의미에서만 구현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신문, 라디오, TV 등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는 뉴스 담화 중에서 TV 뉴스에 한정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모두 수용자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제보 기능을 가지며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고도의 노동 집약적 협업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현실 세계와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언론인들의 관점을 통해 재구성해서 수용자에게 전달한다는 것 역시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를 담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현실 세계가 재구성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뉴스’라는 공통된 하나의 담화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담화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서도 매체별로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TV 뉴스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먼저, TV 뉴스는 다른 매체가 전달하는 뉴스와 달리 언어적인 부분이 음향과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전달된다는 것이다. 라디오 뉴스는 음향과 함께 전달되지만 시각적 이미지는 전달하지 못하며 신문 기사는 시각적 이미지를 보조 수단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지된 이미지에 지나지 않으며 음향 또한 담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TV 뉴스를 분석하면서 TV가 시각적이며 동시에 언어적인 특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매체라는 점을 고려해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담화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청계천 노점상 철거에 대한 〈SBS 8시 뉴스〉,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하나의 뉴스 프로그램 체계 안에서 청계천 노점상 철거와 관련된 담화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담화 외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담화 외적인 부분이라 함은 이들 세 방송사의 뉴스에서 청계천 철거 담화가 몇 개의 뉴스 아이템으로 나타났는지, 또 몇 번째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할당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외적인 면에서의 관찰은 뉴스의 질적인 분석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뉴스 프로그램에서 톱뉴스로 다뤄지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기획된 아이템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과 중간이나 끝에서 단신으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사건이 있다면

이 둘 사이에는 —실제적인 사건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뉴스를 산출하는 집단에서 바라보는 뉴스로서의 가치 차이가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특히 위의 세 개의 프로그램 같은 종합 뉴스에서는 뉴스 아이템의 배열이 아주 중요하다. 보통 취재된 40-50개의 아이템 중에서 23-24개의 리포트 아이템이 결정되고 이 중 무엇이 중요하며 관심과 초점을 받느냐를 감안해 톱뉴스와 두 번째 뉴스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담화 내적인 측면에서 청계천 담화를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TV 뉴스는 언어로 표현된 담화 외에도 시각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점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뉴스 보도문과 결합된 시각 영상의 처리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별 생각 없이 TV 뉴스에서 시각 이미지는 언어로 표현된 보도문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적어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TV를 보지만 과연 그런지, 또 이 둘이 만약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불일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뉴스 담화가 담고 있는 주제와 그것의 구조, 언어적인 특징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담화를 생산하는 쪽과 그것을 소비하는 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결국 담화의 주제이며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방송사나 언론인의 관점에 따라 언어의 선택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II. 담화의 외적 구조— 뉴스 프로그램 체계 안에서의 담화의 위치

앞서 말했듯이 이곳에서는 각 방송사에서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청계천 철거 담화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아볼 것이다. 일단 어떤 사건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뉴스로서 선택되면 정해진 시간에 맞게 영상의 기술적인 편집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앵커 맨트와 해설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아무리 보도 프로그램의 준수 사항인 중립적인 입장은 강조해도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과 정확성, 균형성 등은 방송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편파성을 띠게 마련이다. 다음에 각 프로그

램의 방송 아이템 순서를 표로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사건들이 방송인들의 관점에 의해 뉴스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기로 하겠다.

먼저 〈SBS 8시 뉴스〉는 모두 22개의 아이템을 보도했는데 이중 청계천 철거 관련 뉴스는 여덟 번째로, 2분 22초에 걸쳐 방송되었다.

표 1. 2003년 11월 30일자 〈SBS 8시 뉴스〉의 뉴스 보도 순서

방송순서	제목	분야
1	이라크 일본 외교관2명 피살	국제
2	스페인군도 피습, 시신 학대 장면 방송 '충격'	국제
3	일본, 스페인, 그 다음은 어디인가?	국제
4	문화상, 최대표 방문... 대통령 회동 제안	정치
5	대선자금수사 어디까지 가나?	정치
6	한국 청소년 축구, 전차군단 독일 격파	스포츠
7	리틀 태극전사, 한 풀었다!	스포츠
8	청계천 노점상 충돌속 강제 철거(02:22)	사회
9	인천서 버스-승용차 충돌, 3명 사망	사회
.....	(중략)
22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듯	생활(날씨)

방송 관례상 비중 있는 뉴스가 1분 30초에서 1분 50초 정도로 시간이 할당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긴 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방송된 〈KBS 뉴스 9〉에서는 모두 26개 뉴스 아이템 중 6번째로 보도됨으로써 보도 순서에서는 SBS 뉴스보다 앞서 있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뉴스의 길이는 1분 35초로, 비교적 비중 있는 아이템에 속하는 분량이라고 하지만 앞의 SBS보다는 상당히 짧다.

표 2. 2003년 11월 30일자 <KBS 뉴스 9>의 뉴스 보도 순서

방송순서	제목	분야
1	이라크 파병 담사중 일 외교관 2명 피살	국제
2	스페인군 7명 사망, 연합군에 잔인한 11월	국제
3	주 이라크 공관 안전 강화 지시	국제
4	아파트 분양가 인하 시대	경제
5	음주 30대 점질방에서 자다 숨져	사회
6	청계천 노점상 철거 마무리(01:35)	사회
7	청소년 축구, 독일전 승리 상큼한 출발	스포츠
.....	(중략)
26	내일 전국이 맑음	생활(날씨)

KBS, SBS 모두 톱뉴스는 이라크 관련 뉴스이며 각각 3개 아이템에 걸쳐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 노점상 철거’ 뉴스는 이라크 사태 뉴스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보이는 MBC의 뉴스 아이템 배열은 청계천 철거에 대한 보도 태도가 SBS와 KBS와 아주 다름을 보여준다.

표 3. 2003년 11월 30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 보도 순서

방송순서	제목	분야
1	청계천 노점상 충돌(1) 철거... 충돌(01:57)	사회
2	청계천 노점상 충돌(2) 밤새워 격렬 저항(01:31)	사회
3	청계천 노점상 충돌(3) 서울시의 계획 “청계천엔 안된다”(01:30)	사회
4	철거현장(1) 꺼지지 않는 불씨	사회
5	철거현장(2) 개발의 그늘 ‘40년’	사회
6	이라크, 日 외교관 2명 피살	국제
7	[단신] 주 이라크 대사관에 안전강화 지시	국제
.....	(중략)
22	예년보다 5도 가량 높아, 금요일쯤 비	생활(날씨)

〈표 3〉에서 보듯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청계천 철거 관련 담화가 3개의 아이템으로 나뉘어 톱뉴스로 보도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계속되는 다음 기사도 청계천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성 있는 기사로, 이날 방송되는 뉴스 중 청계천 철거에 대한 뉴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도 시간에 있어서도 3개 아이템의 보도 시간은 각각 1분 30초 이상으로 모두 합해 총 4분 58초가 되기 때문에 SBS(2분 22초)나 KBS(1분 35초)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두 방송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라크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철거 관련 뉴스의 다음에 배치하고 2개의 아이템으로 취급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같은 사건임에도 방송 순서나 시간의 배분 등을 통해 MBC가 다른 두 방송사보다 이것을 더 중요한 사건으로, 즉 ‘뉴스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뉴스 아이템의 배열 순서에서 보이는 차이는 각 뉴스 프로그램별 수용자 구성에서 나타나는 차이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텍스트에서 수용자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그때그때의 시청률이 중요한 TV는 수용자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김우룡(2002:93-98)에 의하면 각 방송사의 8시와 9시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의 연령별 수용자 구성을 조사한 결과 KBS1은 35세 이상의 중장년층, MBC는 25세에서 34세까지, SBS는 24세 이하의 시청 집단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 MBC가 청계천 철거 담화를 중요한 뉴스로 배열하고 다른 두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뉴스로 배열한 것은 각 방송사의 주요 시청자 집단에서 보이는 관심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III. 담화의 내적 구조

여기에서는 담화의 내적인 측면을 보도문 내용과 화면 구성의 관련성, 담화의 주제 구조, 언어적인 특징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1. TV 뉴스 담화에서 시각 이미지가 갖는 의미

우리가 보도문과 화면 구성과의 관련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텔레비전 뉴스가 ‘말하기(telling)’뿐만 아니라 ‘보여주기(showing)’, 즉 시각 이미지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TV 뉴스가 보여주는 영상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뉴스 영상은 사건에 대한 묘사를 현실적으로 만들었으며 TV 뉴스 보도의 신뢰성을 크게 증진시켰다. 따라서 TV 뉴스에 종사하는 많은 실무자들 역시 TV 뉴스의 최대 강점이자 특징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보여 주는 영상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²⁾

그런데 여기서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구성 방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 있다. 김수정(2003)은 한국과 미국의 TV 뉴스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TV 뉴스가 갖는 영상 구성의 특징으로, 첫째, 많은 화면이 편집을 통해 신속히 보여지고, 부단한 카메라의 조작과 많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 둘째, 영상 이미지들이 기자의 언술 내용을 최대한 시각적으로 재생해 낸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처럼 영상 이미지와 언술 내용이 항상 긴밀히 상응하는 관행을 보이는 경우 오히려 그 두 부분 사이에 사소한 어긋남이 발견될 때 저널리스트의 의도적 개입이나 더 나아가 조작의 가능성성을 떠올릴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계천 철거와 관련된 다섯 개의 뉴스 아이템은 영상 이미지와 기자들의 언술 내용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편의상 이들 중 영상 이미지와 보도 내용의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예 두 개만 본문에 제시하고 나머지 세 개의 보도문은 부록에서 표로 보이기로 한다. 부록에 제시된 예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날 방송된 세 방송사의 5개 보도문 대부분은 우리나라 TV 뉴스의 관행대로 영상 이미지와 보도 내용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는 〈MBC 뉴스데스크〉의 연속된 세 개의 아이템 중 첫 번째 것으로 영상 이미지가 보도 내용을 그대로

2) 이종수(1999:220)

반영한 예를 보여 준다.

표 4. 〈MBC 뉴스데스크〉①의 보도문 전문

제목(DVE 제목)	[MBC] 청계천 노점상 충돌(1) 철거... 충돌
앵커 밴트 0:00-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한 노점상 철거가 오늘 강행돼서 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화면 구성	본문
0:08- (1) 불길	—
0:14- "	[1] 오전 7 시 노점상들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따라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2] 검은 연기가 청계천 주변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3] 여기저기서 가스통이 잇따라 폭발합니다.
0:30- (2) 가스통 폭발/불길	—
0:36- (3) 대치 장면/그래픽으로 교통 상황 제시	[4] 오전 8 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5] 노점상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6] 청계 2가에서 9가 사이 철거구간 가운데 7가와 8가 사이 200m 지역에서 노점상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면서 휴일 아침 교통은 때아닌 혼잡을 빚었습니다.
1:06- 대치장면	[7] 오전 11 시, 경찰의 마지막 경고방송이 나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13- "	[8] (경찰, 스피커 소리만)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불법적인 폭력을 막기 위해 곧 살수를 할 예정입니다.”
1:24- (4) 밀리는 노점상/철거 작업	[9] 용역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백명이 한꺼번에 투입되면서 노점상들은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10] 노점 철거작업은 속속 진행됐습니다.
1:36- (5) 기자 클로즈업/철거 장면	[11] 노점상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밤새 대치했던 이곳 청계 7가의 좌판들도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1:46- 1:57 (6) 철거 후 풍경	[12] 낮 12 시 반, 노점 680여 개가 모두 치워지면서 철거작업은 네 시간 여만에 끝이 났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표 4〉를 보면 화면 구성이 보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도문의 언술 내용 [1], [2], [3]의 앞뒤로 현장의 느낌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보도문 없이 음향 효과와 화면만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청자는 생생한 현장감과 함께 뉴스로 보도된 사건을 ‘사실처럼’ 전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현실의 생생한 재현이 이뤄지고 있는 담화 구조에서 갑자기 보도문과 시각적 이미지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면 이는 예기하지 못했던 효과를 갖는다. 다음 역시 〈표 4〉와 같은 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문이지만 보도문과 영상 이미지의 관계는 앞의 것과 다르다.

표 5. 〈MBC 뉴스데스크〉③의 보도문 전문

제목(DVE 제목)		[MBC] 청계천노점상 충돌(3) 서울시의 계획 “청계천엔 안된다”
앵커 멘트 0:00-		청계천 주변 노점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노점상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구성		본문
0:08-	(1) 철거 장면	[1] 서울시가 오늘 노점 철거를 강행한 것은 노점상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2] 또한 앞으로도 청계천 주변을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정해 노점상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7-	(2) 서울시직원 클로즈업	[3] (서울시직원) “재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감시인력과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발생 즉시 철거토록 할 계획...”
0:33-	(3)기자 클로 즈업/철거	[4] 철거를 끝낸 서울시는 이처럼 보도블럭을 완전히 파헤쳐 노점이 들어설 자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0:40-	(4) 철거장면	[5] 서울시는 대신 노점상들이 당분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 장기적으로는 시유지에 풍물시장 등을 조성해 노점상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7] 하지만 노점상들은 청계천 주변에도 계속 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5) 노점상 클로즈업	[8] (전국노점상연합회 사무처장) “차후에 청계천이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풍물시장으로서 아니면 벼룩시장으로써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

1:09-	(6) 철거 장면	[9] 이와 함께 노점상들은 서울시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노점을 수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8- 1:30	(7) 시위하는 노 점상들/ 불 길	[10]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노점상들과 서울시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문 내용과 화면 구성이 일치하는데 진하게 표시된 (4)의 철거 장면과 [5], [6], [7]의 기자의 보도 내용에서는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 화면상으로는 철거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청계천 노점상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바와 노점상의 요구에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TV 뉴스 담화를 시각 기호와 청각적인 언어 기호가 융합되어 만들 어낸 복합적인 텍스트라 볼 때 서로 다른 두 가지 기호가 동시에 전달하는 주제가 어긋나게 되면 결국 담화가 갖는 응집성을 깨뜨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화면과 내용의 어긋난 결합은 노점상 측의 인터뷰나 입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해당 취재원을 클로즈업하거나 노점상 측의 상황을 비추던 담화의 양상과 사뭇 다르다. 만약 서울시의 노점상에 대한 계획이 보도되는 [5], [6]의 문장이 발화되는 부분에서 철거 장면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화면이 제시되거나 아니면 더욱 적극적으로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제시했다면 서울시가 내놓은 앞으로의 계획에 신뢰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점상들을 유치시키겠다는 취지로 노점상을 배려해주는 서울시의 계획과 그러한 의도에 반해 화면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철거 장면은 화면과 보도 내용이 협력해서 이를 수 있는 주제의 응집성을 깨뜨림으로써 서울시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부정적인 입장은 은근히 드러내 주고 있다.³⁾

3) 또 인터뷰를 하거나 발화 내용을 직접 실으면서 인물을 클로즈업한 경우를 첫 번째 뉴스 아이템에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두 번째 뉴스에서는 노점상의 인터뷰와 발언만 3번, 세 번째 뉴스에서는 서울시 직원과 노점상의 인터뷰가 각각 1 번씩 나타나서 노점상의 인터뷰나 발언을 좀더 많이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다.

2. 담화의 주제 구조

담화의 산출과 이해 또는 분석과 관련해서 응집성에 대한 연구나 담화의 다양한 층위를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담화를 산출하거나 수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것의 주제일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다를 하나의 사건에 관한 세 개의 보도문을 보았고 이들 모두 ‘제목-앵커 멘트-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제목(DVE 제목)’은 앵커가 앵커 멘트를 하는 동안 앵커의 어깨 너머에 스탤 화면과 함께 소개되는 기사의 제목을 말한다. 기사의 제목은 취재기자가 먼저 쓰지만 이를 다시 편집부에서 최종으로 결정해 만든, 주제를 집약한 표현이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고 기사의 내용을 대강 알 수 있듯이 TV에서는 제목을 보고 대강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의 헤드라인은 독자가 그 기사를 읽고 안 읽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TV 뉴스는 일방적, 계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사의 취사선택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앵커 멘트’는 신문의 리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재 기자가 작성한 것을부장이나 앵커가 수정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뉴스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제목이고 이를 다시 한두 문장으로 풀어놓은 것이 앵커 멘트, 그리고 전체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앵커 멘트와 제목은 비슷한 내용을 다룬다. 다만 제목은 화면에 문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글자수에서 제약을 갖는다. 따라서 문장으로 비교적 길게 발화될 수 있는 앵커 멘트는 명사나 완결되지 않은 구동으로 짧게 제목으로 재작성된다. 굳이 반 다이크의 거시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목과 앵커 멘트를 본문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주제들을 응축시킨 핵심 주제에 대응시킨 하나의 계층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⁴⁾ 그러나 제목의 경우에 앵커 멘트를 기초해 재작성된 것으로 대부분 앵

4) 핵심 주제와 부분 주제, 주변 주제의 계층 구조는 이성만 역(2004)의 제3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또한 Chang, S.(2004)에서는 앵커 멘트가 본문에서 반 다이크의 거시 구조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이 둘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다루고 있다.

커 멘트를 압축시킨 데에 지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글자수의 제약 등으로 온전하게 핵심 주제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앵커 멘트만을 핵심 주제로서 다루도록 한다.

다음의 〈표 6, 7, 8, 9, 10〉에서는 핵심 주제가 각각의 뉴스 아이템에서 발화와 시각적 이미지로 실현된 부분을 보인다. 여기에서 본문만을 다루지 않고 시각 이미지까지 다루는 것은 TV 뉴스에서 시각 이미지가 단순히 발화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보조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SBS 8시 뉴스〉에서 드러난 주제 구조로 여기서 제시한 보도문은 인터뷰 문장은 제외한 것이다.

표 6. 〈SBS 8시 뉴스〉의 주제 분석(청계천 노점상 충돌 속 강제 철거)

핵심 주제 (앵커 멘트)	보도문	화면
청계천 주변 노점상들에 대해서 오늘(0일) 아침에 강제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철거 시작)	[7] 오전 8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 3천 8백명이 철거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는 어젯밤부터 긴장감이 감돌았고 (=노점상의 철거 대비)	[1] 어젯(29일) 밤 11시, 청계 7가 4거리에 노점상 천여명이 몰려듭니다. [2] 서울시의 노점상 철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3] 나무판자와 타이어를 쌓아 놓고, 노점 차량 2백여대를 집결시켰습니다. [5] 오늘 오전 7시 청계천 일대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6] 밤샘 시위를 벌인 노점상들은 거리 곳곳에서 불을 지르며 철거에 대비했습니다.	(0:43)
일부 노점상들이 격렬하게 맞섰습니다만 (=대치 상황)	[4] 서울시는 이들에게 동대문 운동장을 풍물시장을 조성해 주겠다고 했지만, 노점상들은 그대로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8] 노점상 3백여명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9] 한쪽에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다른 쪽에서는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10] 용역직원들도 공사장 칸막이를 들고 대항합니다. [11] LP 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대항하자 용역직원들이 주춤합니다. [12] 이렇게 청계 7가와 8가에서 노점상들이 저항을 하는 새=	(0:29)

<p>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철거 결과)</p>	<p>[12] =나머지 청계 2가부터 9가 지역에선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3] 오전 11시, 시위는 3시간만에 끝나고 청계 8가에서도 철거가 시작됩니다. [14] 격렬한 시위는 오전에 끝났지만 이곳 저곳에서 노점상 인들의 저항은 이어졌습니다. [16] 서울시는 오늘 노점상 6백80개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7] 오늘 충돌로 행인과 노점상 등 40여명이 다쳤습니다. [18] 철거가 끝난 뒤 서울역 노숙자들을 포함한 용역직원들은 회사 측이 약속한 일당 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p>	<p>(0:46)</p>
----------------------------------	---	---------------

〈SBS 8시 뉴스〉는 노점상의 ‘철거 대비—철거 시작—대치 상황—철거 결과’까지 철거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문장의 수는 ‘대치 상황’과 ‘철거 결과’가 제일 많지만 영상은 ‘철거 결과’와 ‘철거 대비’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철거의 과정적인 부분과 철거의 결과 모두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뷰를 제외하고는 핵심 주제에서 생략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KBS 뉴스 9〉의 경우이다.

표 7. 〈KBS 뉴스 9〉의 주제 분석(청계천 노점상 철거 마무리)

핵심 주제 (앵커 멘트)	보도문	화면
<p>서울 청계천의 노점상 철거작업이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철거 결과)</p>	<p>[6] 오늘 철거작업은 노점상들과 대치한 지 5시간 만인 오늘 낮 12시 반쯤 청계로 일대 노상적치물 680여 개를 치우고 모두 끝났습니다. [11] 철거작업은 오늘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p>	<p>(0:34)</p>
<p>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은 문제)</p>	<p>[9] 서울시는 노점상들에게 동대문운동장 부근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하지만 노점상들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갈등은 쉽게 수그려들지 않을 전망입니다.</p>	<p>(0:07)</p>

부록에 제시된 뉴스의 전문(全文)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SBS 8시 뉴스〉와 달리 많은 내용들이 핵심 주제에서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 12개의 문장에서 인터뷰 내용을 제외한 9개 문장 중 네 문장만이 핵심 주제로 드러나 있다. 핵심 주제에서 생략된 부분은 ‘노점상들의 철거 대비[1-3]’ 부분과 ‘대치 상황[4]’, 그리고 ‘서울시의 노점상들에 대한 요구[5]’ 부분이다. 핵심 주제에서는 이들을 모두 생략하고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철거 결과’와 ‘남은 문제’만이 부각되고 있다. 〈SBS 8시 뉴스〉가 전체의 과정을 핵심 주제에서 다루었던 것과 달리 〈KBS 뉴스 9〉에서는 이러한 ‘철거의 과정’들이 생략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8, 9, 10〉은 〈MBC 뉴스데스크〉의 청계천 뉴스의 세 아이템의 주제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이다.

표 8. 〈MBC 뉴스데스크〉①의 주제 분석(청계천 노점상 충돌(1) 철거...
충돌)

핵심 주제 (앵커 멘트)	보도문	화면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 를 위한 노점상 철거 가 오늘 강행돼서 (=철거 과정)	[4] 오전 8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9] 용역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백명이 한꺼번에 투입되면서 노점상들은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10] 노점 철거작업은 속속 진행됐습니다.	(0:22)
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대치 상황)	[5] 노점상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6] 청계 2 가에서 9 가 사이 철거구간 가운데 7 가와 8 가 사이 2 0 0 m 지역에서 노점상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면서 휴일 아침 교통은 때아닌 혼잡을 빚었습니다. [7] 오전 1 1 시, 경찰의 마지막 경고방송이 나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0:48)

표를 보면 인터뷰를 뺀 11 문장 중 6개의 문장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다. 또한 이 아이템의 주제 구조는 ‘철거 과정(즉 철거)’

과 ‘대치 상황(즉 충돌)’이라는 양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둘 중 ‘대치 상황’이 보다 부각되어 나타난다. 문장수는 큰 차이가 없으나 화면에 할애하는 시간이 철거 장면은 22초, 충돌 장면은 48초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치 상황’도 ‘철거’라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노점상들의 저항이나 갈등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단순한 ‘철거 과정’과 다르다. 이것은 ‘청계천 철거’라는 시안이 노점상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만 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표 4>에서 제시된 보도문 전문(全文)과 비교해 보면 노점상들의 철거 대비 부분([1]-[3])과 철거 결과([11]-[12]) 부분이 핵심 주제 구조에서 생략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담화에서 노점상들의 철거 대비와 철거 결과는 부분 주제이지만 핵심 주제로 실현되지 않은 주변 주제인 것이다.

<표 9>은 두 번째 아이템의 핵심 주제 구조이다.

표 9. <MBC 뉴스데스크>②의 주제 분석(청계천 노점상 충돌(2) 밤새워 격렬 저항)

핵심 주제 (앵커 멘트)	보도문	화면
오늘 철거현장에서는 노점상인들이 철거반 원들에 맞서서 밤새워 격렬하게 저항 했습니다. (=대치 상황)	[1] 매캐한 냄새와 그을음이 가득찬 거리, 노점상들이 철거반원을 향해 깨진 보도블럭을 마구 내던집니다. [2] 하지만 격렬한 저항 끝에 지친 노점상들은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4] 노점상 1명이 철거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6] 승용차를 끌고 나와 철거반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입니다. [9] 어젯밤을 뜬눈으로 지샌 터라 기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11] 트럭이 점포를 나르고 굴삭기가 보도를 갈아엎는 동안 노점상들의 고함과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0:52

여기에서는 첫 번째 아이템에서 강조되었던 대치 상황이 더욱 강조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핵심 주제는 ‘노점상들의 대치와 저항’뿐이며 생략된 부

분은 인터뷰를 빼면 보도문 (2)에서 제시된 ‘철거 과정’을 나타내는 문장 [3]과 ‘노점상들의 포기(철거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8]이다. 즉 부분 주제는 ‘철거 과정[3]’, ‘노점상들의 대치/저항[1], [2], [4], [6], [9], [11]’, ‘철거 결과(노점상들의 포기)[8]’,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 핵심 주제로 나타나는 것은 ‘노점상들의 대치와 저항’뿐이며 나머지 둘은 주변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표 10〉은 MBC 청계천 보도 뉴스 세 번째 아이템이다.

표10. 〈MBC 뉴스데스크〉③ 주제 분석(청계천노점상 충돌(3) 서울시의 계획 “청계천엔 안된다”)

핵심 주제 (앵커 멘트)	보도문	화면
청계천 주변 노점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과 (=서울시 계획)	[1] 서울시가 오늘 노점 철거를 강행한 것은 노점상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2] 또한 앞으로도 청계천 주변을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정해 노점상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철거를 끝낸 서울시는 이처럼 보도블럭을 완전히 파헤쳐 노점이 들어설 자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5] 서울시는 대신 노점상들이 당분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 장기적으로는 시유지에 풍물시장 등을 조성해 노점상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0:42)
노점상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점상의 요구)	[7] 하지만 노점상들은 청계천 주변에도 계속 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 이와 함께 노점상들은 서울시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노점을 수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0:21)

세 번째 아이템의 핵심 주제는 ‘서울시의 계획’과 ‘노점상의 요구’ 둘로 압축된다. 그러나 화면 구성이나 보도문의 길이 등은 이 둘 중 ‘서울시의 계획’이 우월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결국은 청계천 문제 해법의 열쇠는 ‘서울시’ 측에서 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문의 문장 중에는 인터뷰 내용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노점상 간의 향후 관계 예측(남은 문제)’를 다룬 문장 [10]만 생략되어 있으며 이것이 핵심 주제로 실현되지 않은 주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제시한 주제의 계층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해 보아도록 하겠다.

[SBS 뉴스]

[KBS 뉴스]

[MBC 뉴스(1)]

[MBC 뉴스(2)]

[MBC 뉴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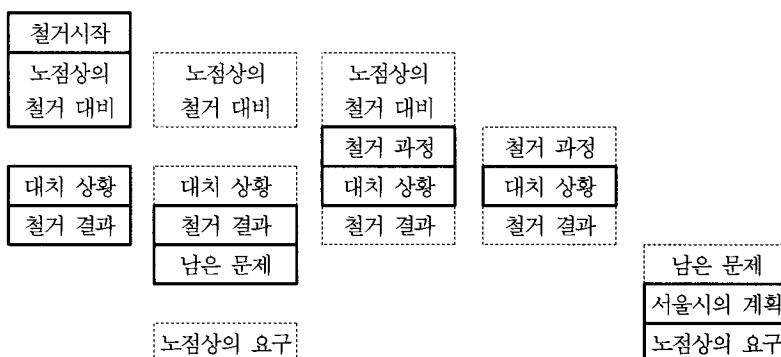


그림. 청계천 담화의 주제 계층 구조

여기에서 보이는 모든 주제는 텍스트의 부분 주제들이다. 그 중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보도되었지만 핵심 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변 주제이고 진한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핵심 주제이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주제 구조의 분석에 따라 각 뉴스 아이템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SBS 뉴스와 MBC 뉴스 중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이 사건의 객관적인 전달이라는 뉴스 본연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KBS 뉴스와 MBC 뉴스의 세 번째 아이템은 여기에 논평을 첨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다음 3.3에서는 보도문에 나타난 문장들을 대상으로 문장들의 주어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덧붙여 인터뷰의 빈도를 살펴보자 한다.

3. 주어 실현과 인터뷰 빈도

담화의 의미와 주제를 드러내 주는 언어적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우리는 어떤 명사나 명사구가 주어로 실현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라도 주어로 행위주를 부각시키느냐, 피행위주를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능동문으로, 어떤 것은 피동문으로 실현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청계천 철거 관련 담화는 ‘청계천 철거’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시’라는 행위주와 ‘노점상’이라는 피행위주의 대립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어떤 것이 문장의 주어로 실현되느냐 하는 것은 뉴스가 내포하고 있는 관점을 드러내 줄 것이다.

〈SBS 8시 뉴스〉는 총 18문장 중 인터뷰를 제외한 17개 문장에서 ‘노점상’ 관련 어휘들이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10번,⁵⁾ 철거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이 4번, ‘철거’나 ‘시위’ 같은 사건 자체가 주어로 나타난 것은 각각 3번과 2번, ‘청계천’과 ‘서울시’가 각각 1번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점상’이 SBS 뉴스가 드러내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KBS 뉴스 9〉는 12개 문장 중 인터뷰 세 문장을 빼고 ‘노점상’이 3번, ‘서울시’와 ‘철거작업’이 각각 2번, ‘화염’, ‘불길’, ‘검은 연기’, ‘갈등’이 각각 1번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노점상’이 조금 많지만 ‘서울시’와 비슷한 정도로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MBC 뉴스데스크〉는 첫 번째 보도문에서 인터뷰를 뺀 10개 문장 중 주어로 ‘노점상’ 관련 어휘들이 4번, ‘좌판들’, ‘노점’이 각각 1번, ‘철거용역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 2번, ‘철거작업’과 ‘검은 연기’, ‘긴장감’이 각각 2번씩, ‘용역업체직원’, ‘불길’, ‘가스통’, ‘교통’, ‘경찰의 경고방송’이 각각 1번씩 나타나 상황에 관한 묘사가 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노점상들의 대치와 저항을 주로 다루었던 두 번째 보도문에서는 인터뷰를 뺀 8개 문장에서 주어가 ‘노점상’ 7번, ‘트럭’이나 ‘트럭과 지게차’ 2번, ‘매캐한 냄새와 그을음’, ‘빈틈’, ‘굴삭기’, ‘철거작업’이 각각 1번으로 나타나

5) 여기에는 ‘노점상들의 저항’이 주어로 쓰인 경우가 한 번 포함되어 있다.

노점상의 행위—여기서는 저항—to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계획과 노점상의 요구를 다룬 세 번째 보도에서는 인터뷰를 빼 8개 문장에서 주어가 '서울시' 5번, '노점상' 2번, '노점상과 서울시' 1번, '청계천 복원 공사' 1번으로 나타나 바로 앞의 보도문들과 달리 '서울시'의 태도와 계획이 중요하게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철거를 주도하는 측은 서울시나 철거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계획에 관한 MBC의 세 번째 보도문과 양쪽이 비슷하게 나타난 KBS의 보도문을 제외한 나머지 보도문들은 청계천 철거라는 사건을 노점상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터뷰나 발언의 횟수에서도 나타난다. 〈SBS 8시 뉴스〉는 노점상의 인터뷰만 1번 나타났는데 반해 〈KBS 뉴스 9〉는 노점상이 2번, 청계천 복구소장이 1번 나타났으며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첫 번째 뉴스에서 노점상에 대한 경찰의 위협이 목소리로만 1번, 두 번째 뉴스에서는 노점상의 인터뷰와 발언만 3번, 세 번째 뉴스에서는 서울시 직원과 노점상의 인터뷰가 각각 1번씩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 방송사가 노점상의 인터뷰나 발언을 좀더 많이 실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와 발언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 뉴스가 노점상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노점상의 입장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MBC 뉴스데스크〉의 두 번째 아이템, 즉 노점상들의 대치와 저항을 다룬 곳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여기에서는 주어 역시 '노점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음을 앞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IV. 맷음말

이상에서 '청계천 철거'와 관련된 뉴스 담화를 담화 외적으로, 담화 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담화 외적으로는 하나의 뉴스 프로그램 안에서 그것이 뉴스 아이템으로 어떻게 조직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담화 내적으로는 그것이 담은 주제의 계층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담화의 주제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 우리는 TV 뉴

스리는 매체적인 특성에 집중해서 시각 이미지와 보도문이 주제를 함께 구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TV 뉴스가 본문, 앵커 멘트, 제목으로 압축되는 과정이 주제를 구성하는 과정과 같다고 보고 이를 통해 핵심 주제와 주변 주제를 결정, 전체의 부분 주제들이 나타내는 계층 구조를 나타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담화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았지만 보다 정밀한 연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재수용 관계 등의 언어적 요소에 좀더 천착을 해서 담화의 언어적 특징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시도해서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에 천착할 과제로 돌리고 여기서 글을 맺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언어문학 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 김수정(2003), “뉴스 객관성의 영상화: 한국과 미국의 환경뉴스 사례의 비교연구,” *한국언론 학보* 47권 5호, pp. 363~384.
- 박거용(1995), “신문답론분석을 위한 예비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4, pp. 263~285.
- 박여성 역(1996), 미디어 인식론: *인지-텍스트-커뮤니케이션*, 까치.[Schmidt, S. J.(1994), *Kognitive Autonomie und soziale Orientierung: konstruktivistische Bemerkungen zum Zusammenhang von Kognition, Kommunikation, Medien und Kultur,*]
- 박정순(1995),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출판.
- 백선기·곽영선(1999), “뉴스 담론의 구조와 의미 구성—'97년 '한보 사태' 보도에 대한 반다이크 분석을 적용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6, pp. 165~203.
- 서경주 역(1997), 미디어와 권력, *한울아카데미*.[Curran, J. and J. Seaton(1988), *Power without Responsibility*, London: Routledge.]
- 이성만 역(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수정 제5판), 도서출판 역락.[Brinker, K.(2002),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Berlin: Erich Schmidt Verlag.]
- 이종수(1999), “텔레비전 뉴스영상 구성: 한국 텔레비전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텍스트의 연관성 분석,” *한국 방송 학보* 12, *한국 방송 학회*, pp. 219~252.
- Chang, S.(2004). The Intertextuality of Korean TV News Reports, In: *Interface of Translation Studies and Language Sciences: The Case for Korean*, University of Bonn, pp. 23~34.
- Davis, H. (1985). Discourse and Media Influence. In: van Dijk ed.(1985). *Discourse and Communication*, Berlin: Walter de Gruyter, pp. 44~59.
- DeWerth-Pallmeyer(1997). *The Audience in the New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van Dijk, T.A. ed.(1985). *Discourse and Communication*, New York: Walter de Gruyter.
- Fairclough, N.(1995). *Media Discourse*, New York: Edward Arnold.
- Newsom & Wollert(1985). *Media Writing*. Belmont: Wadsworth.

〈부록 1〉 〈SBS 8시 뉴스〉의 보도문 전문(청계천 노점상 충돌 속 강제 철거)

제목(DVE 제목)	[SBS] 청계천 노점상 충돌 속 강제 철거
화면 구성	본문
앵커 멘트 0:00-	청계천 주변 노점상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강제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어젯밤부터 긴장감이 감돌았고 일부 노점상들이 격렬하게 맞섰습니다만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0:17- (1) 노점상 집결	[1] 어젯(29일) 밤 11시, 청계 7가 4거리에 노점상 천여명이 몰려 듭니다. [2] 서울시의 노점상 철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3] 나무판자와 타이어를 쌓아 놓고, 노점 차량 2백여대를 집결시켰습니다.
0:33- "	[4] 서울시는 이들에게 동대문 운동장에 풍물시장을 조성해 주겠다고 했지만, 노점상들은 그대로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0:43- (2) 불길, 철거 대비	[5] 오늘 오전 7시 청계천 일대가 시카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6] 밤샘 시위를 벌인 노점상들은 거리 곳곳에서 불을 지르며 철거에 대비했습니다.
1:00- (3) 대치 장면	[7] 오전 8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 3천 8백명이 철거에 들어갑니다. [8] 노점상 3백여명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9] 한쪽에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다른 쪽에서는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10] 용역직원들도 공사장 칸막이를 들고 대항합니다. [11] LP 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대항하자 용역직원들이 주춤합니다. [12] 이렇게 청계 7가와 8가에서 노점상들이 저항을 하는 새=
1:29- (4) 나머지 지역 철거 장면	[12]=나머지 청계 2가부터 9가 지역에선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35- (5) 철거 장면	[13] 오전 11시, 시위는 3시간만에 끝나고 청계 8가에서도 철거가 시작됩니다.
1:42- (6)철거/대치 장면	—
1:48- (7)기자 클로즈업/철 거/대치 장면	[14] 격렬한 시위는 오전에 끝났지만 이곳 저곳에서 노점상인들의 저항은 이어졌습니다.
1:54- (8)노점상 클로즈업	[15] (노점상) “여기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 아침에 거지 된 거 아녜요. 지금”
2:01- (9)철거 장면	[16] 서울시는 오늘 노점상 6백80개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05- (10)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17] 오늘 충돌로 행인과 노점상 등 40여명이 다쳤습니다.
2:10- (11)용역직원 들의 시위	[18] 철거가 끝난 뒤 서울역 노숙자들을 포함한 용역직원들은 회사 측이 약속한 일당 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나며 3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2:22	

〈부록 2〉 〈KBS 8시 뉴스〉의 보도문 전문(청계천 노점상 철거 마무리)

제목(DVE 제목)	[KBS] 청계천 노점상 철거 마무리	
화면 구성	본문	
0:10- 앵커 멘트 0:00-	(1) 불길	[1] 밤새 모여든 노점상들이 공사자재를 모아 불을 질렀습니다. [2]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3] 가스통에서는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0:25-	(2) 대치 장면	[4]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격렬한 투석전도 벌입니다.
0:29-	(3) 소리지르는 노점상	[5] (노점상) “이 거리를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0:35-	(4) 철거작업/ 밀리는 노점상	[6] 오늘 철거작업은 노점상들과 대치한 지 5시간 만인 오늘 낮 12시 반쯤 청계로 일대 노상적치물 680여 개를 치우고 모두 끝났습니다. [7] 서울시는 청계로 3m로 줄이는 공사가 노점상들의 반발로 한 달째 늦춰지자 철거반원 3500여 명을 동원하고 경찰 4500여 명을 대기시킨 가운데 철거작업을 강행했습니다.
0:57-	(5) 복구소장 클로즈업	[8] (복구소장) “빨리 노점상들이 나가야 저희가 2004년 9월 달에 주목 목표로 작업이 가능해지니 오늘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1:06-	(6) 철거장면	[9] 서울시는 노점상들에게 동대문운동장 부근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2-	(7) 노점상 클로즈업	[10] (노점상) “누가 1000원짜리, 3개에 1000원짜리 한 개에 500원짜리 물건을 사려 거기까지 오겠으며 결국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1:22-	(8) 기자 클로즈업/ 철거 장면	[11] 철거작업은 오늘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12] 하지만 노점상들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
1:28- 1:35	(9) 철거/ 대치 장면	[12] =영업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부록 3〉 〈MBC 뉴스데스크〉②의 보도문 전문

제목(DVE 제목)		[MBC] 청계천 노점상 충돌(2) 밤새워 격렬 저항
앵커 멘트 0:00-		오늘 철거현장에서는 노점상인들이 철거반원들에 맞서서 밤새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화면 구성		본문
0:08-	(1) 대치 장면	[1] 매캐한 냄새와 그을음이 가득찬 거리. 노점상들이 철거반원을 향해 깨진 보도블럭을 마구 내던집니다. [2] 하지만 격렬한 저항 끝에 지친 노점상들은 곳곳으로 훌어집니다. [3] 빗틈이 보이자 트럭과 지게차가 몰려들어 삽시간에 점포를 뜯어나릅니다.
0:36-	(2) 노점상 클로즈업/대치	[4] 노점상 1명이 철거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0:38-	"	[5] (노점상) "야, 이 자식들아, 절대 안돼."
0:43-	(3) 대치 장면	[6] 승용차를 끌고 나와 철거반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입니다.
0:50-	"	[7] (노점상) "우리는 당장 밥숟가락 놓게 생겼다니까. 무슨 한 사람이야? 여기만 해도 300명인데..."
1:00-	(4) 포기 장면	[8] 철거작업이 잠시 중단된 사이 싸우기를 포기한 일부 노점상들은 물건을 챙겨나릅니다. [9] 어젯밤을 뜬눈으로 지샌 터라 기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1:12-	(5) 노점상 클로즈업	[10] (노점상) "우리가 12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5시, 6시 하더니 7시부터 친 거 아니에요."
1:19- 1:31	(6) 철거장면/ 노점상얼굴 클로즈업	[11] 트럭이 점포를 나르고 굴삭기가 보도를 갈아엎는 동안 노점상들의 고함과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